

다노우에 관음당 무나후다(상량패) 2장

기소 33번 찰소(순례하는 사람이 참배 표찰을 받는 곳) 중 5번째인 이 관음당은 창시 연도는 분명하지 않으나, 무나후다(상량패)에 의하면 안에이 5년(1776)에 재건되었다고 한다.

게야키즈쿠리 양식의 초가지붕 불당으로, 기소다니(木曽谷)에서는 드문 형태이다.

도리 길이 4.84m, 대들보 길이 3.75m로, 정면의 통풍창인 란마(欄間)의 조각이 정교하다.

본존불에는 성관음 보살(聖觀音菩薩)이 모셔져 있다.

경내에 벚나무 거목이 2그루 있었다고 전해지나, 현재는 1그루가 남아서 지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무나후다(상량패)는 2장 중 1장이 재건된 본당의 것으로, '봉건 관음당 안에이 5년 병신년 11월 6일 입불(奉建直觀音堂安永五歲丙申十一月六日入仏)'이라는 글귀와 당시의 극락사 주지 11대 '가이안 화상(海安和尚)'의 이름, 쇼야(庄屋, 마을의 촌장), 대목수 등 외에도 총비용과 지붕 목수로 추정되는 에치고 사람의 이름이 있어 흥미롭다.

다른 1장은 위쪽에 '봉건립공전(奉建立供殿)'과 그 하단에 '봉기진포석계단(奉寄進鋪石きざはし)' 2건이 기록되어 있고 '포석계단(石きざはし)'이라는 글자는 본당 재건 7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본당 재건 이전부터 경내가 정비되어 있음을 나타내므로 이 관음당의 창시 연도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소무라 문화재 탐방'  
(1986.3.25 발행 기소무라 교육위원회)에서